

재난 · 위험에도 지속 가능한 조직의 경영을 위한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 구축 (BCMS)

1. 재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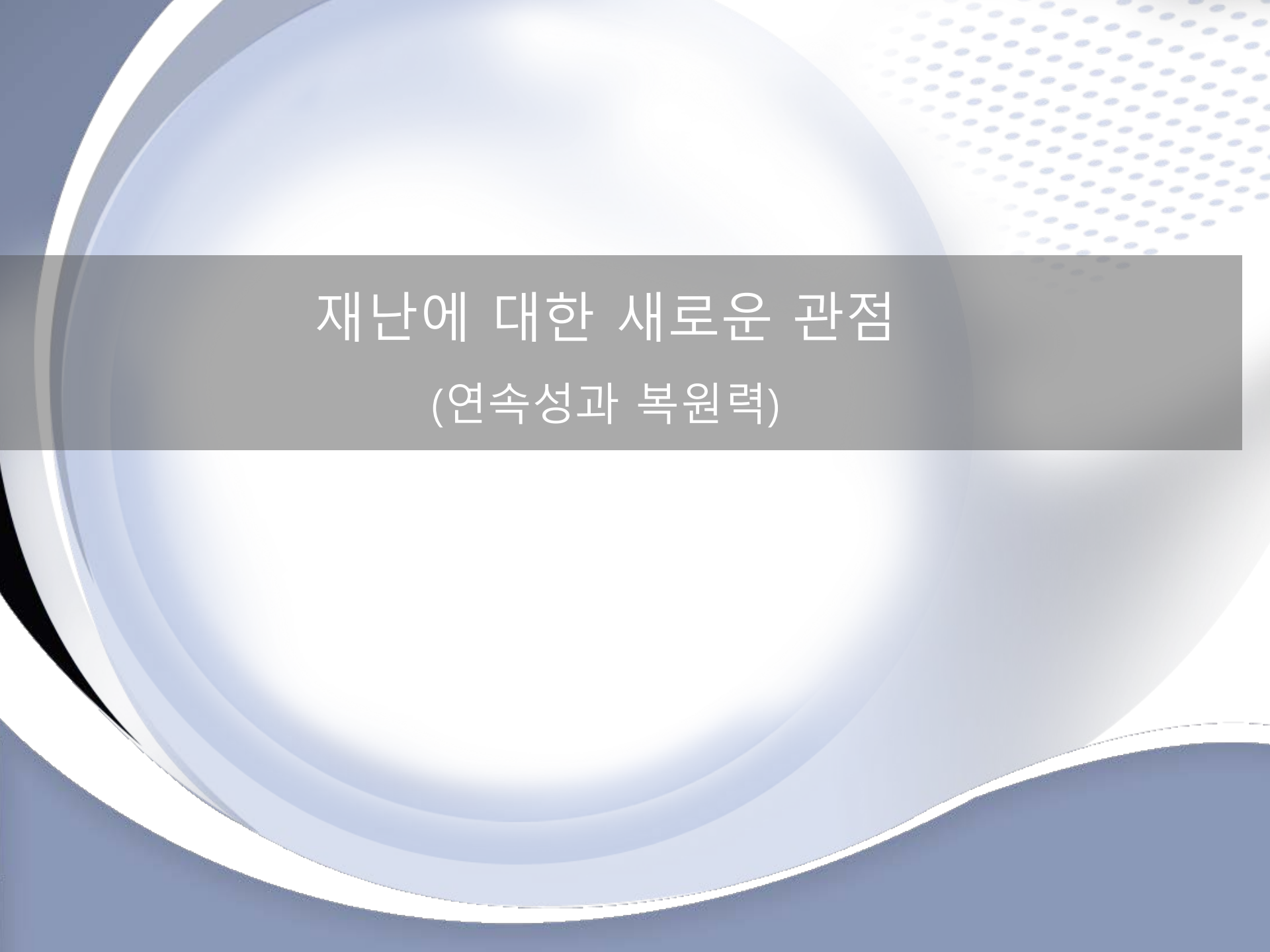
2.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

I)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BCMS)란?

II)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 법적 근거

III) BCMS의 업무프로세스

IV) 기대효과



재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

(연속성과 복원력)

1) 사회 환경의 변화

-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사회시스템의 변화
- 재난 취약요인 증가 및 사고의 대형화 추세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신종재난 발생

2)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증가

- 기후변화 양상
- 재해발생 추이

02. 현재 한국의 안전상황 진단



✓ 국민들의 요구수준은 3만불 수준



✓ 기술, 기능인력 시스템 붕괴



✓ 시설, 설비는 노후화



✓ 규제는 점점 완화



✓ 위험은 고도화, 복합화, 대형화, 집적화



✓ 안전인프라는 1만불 수준

03. “뉴노멀” 재난



대한민국 미래변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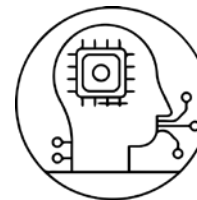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네트워크 사회



글로벌화
안전 위험성 증대
남북통일



기후변화 환경오염
에너지 위기
기술발전 부작용



가상공간
기술 융복합 로봇



웰빙/감성/복지
지식기반경제
노동시장변화

05.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래재난 순서는 ?

① 사이버 테러에 의한 정보인프라/
네트워크 시설마비

.....

사회인프라재난

② 국경을 초월하는 신·변종 감염병

.....

사회재난

③ 초대형 풍수해 재난

.....

자연재난

④ 다중밀집시설에서의 대형 사고

.....

사회인프라재난

⑤ 저출산,고령화 대책 실패

.....

사회재난

⑥ 노후화된 건축물/시설물
(도심터널등)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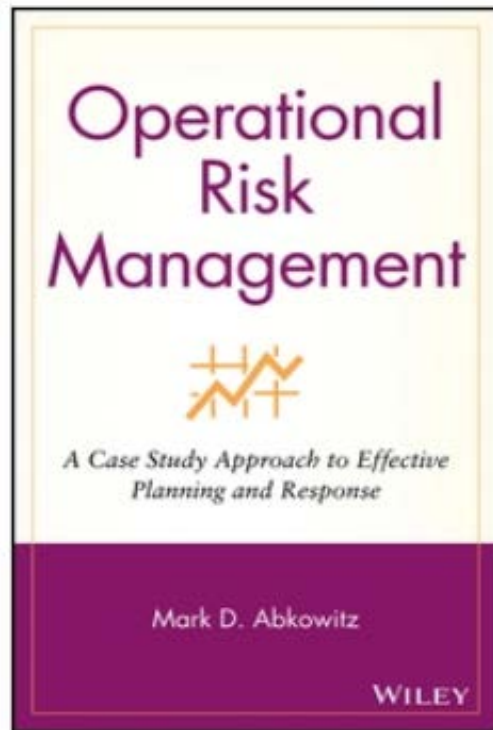
.....

사회인프라재난

⑦ 원자력 시설 붕괴와 방사능 유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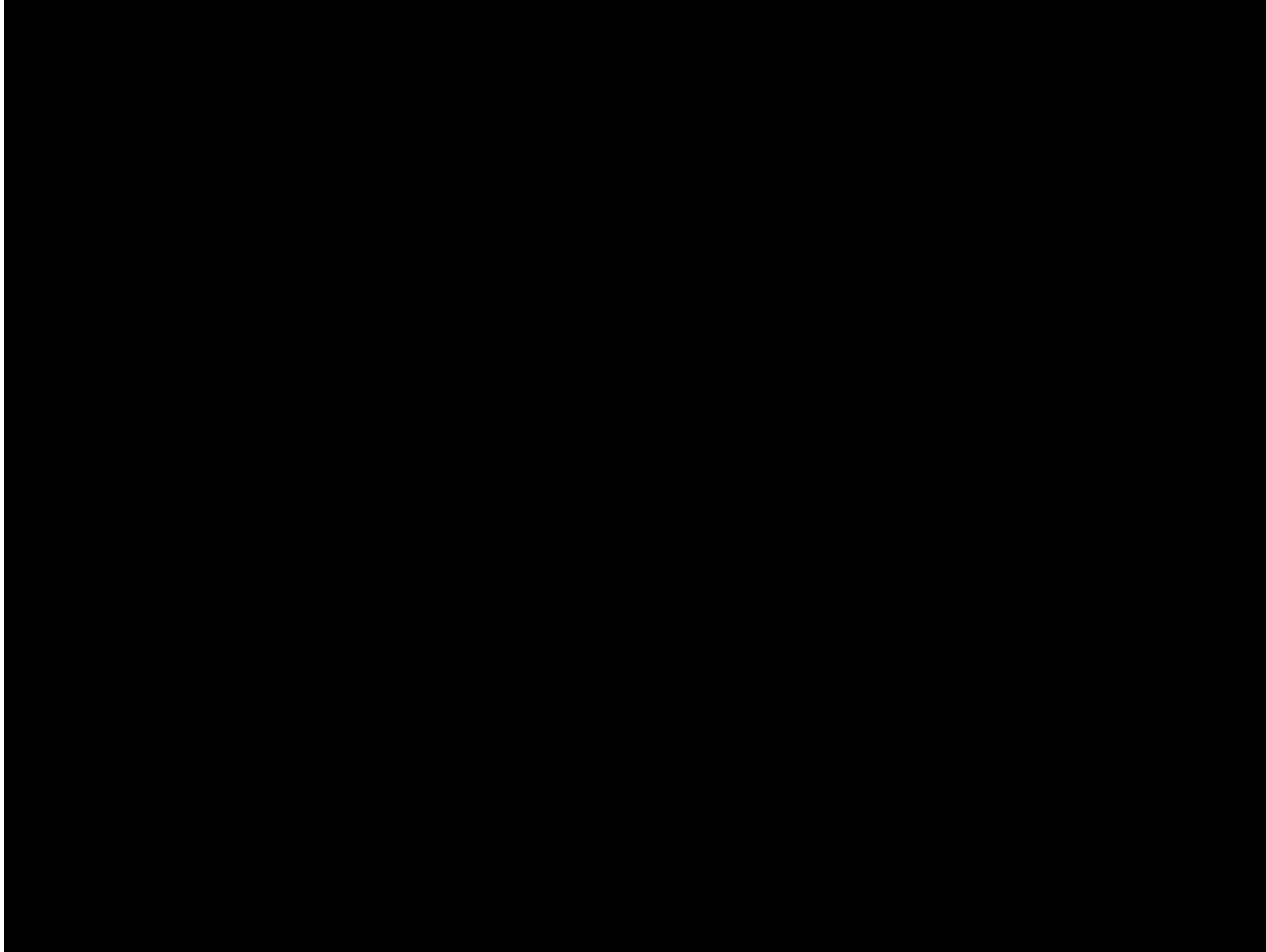
사회인프라재난



재난관리의 세계적 석학
미국 밴더빌트대 앰코워츠 교수

1. 전조 없는 재난은 없다
2. 정보공유의 실패는 재난관리의 실패
3. 과도한 이윤추구는 재난의 시작
4. 전문가의 오판은 대형재난의 지름길
5. 졸속 대책은 곧 대형재난의 원인
6. 철저한 계획과 준비는 불운도 기회로 만든다
7. 재난특성에 무지한 재난정책이 곧 재난
8. 잘못된 정치적 논리는 재난을 키우기만 한다
9. 작은 규모이라도 어기면 재난의 기폭제가 된다
10. 문제는 알지만 재난이 일어나야 깨닫는다
11. 방재는 없다. 감재만 있을 뿐
12. 재난에서 재난을 배운다

07. 관점변화1. 현재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위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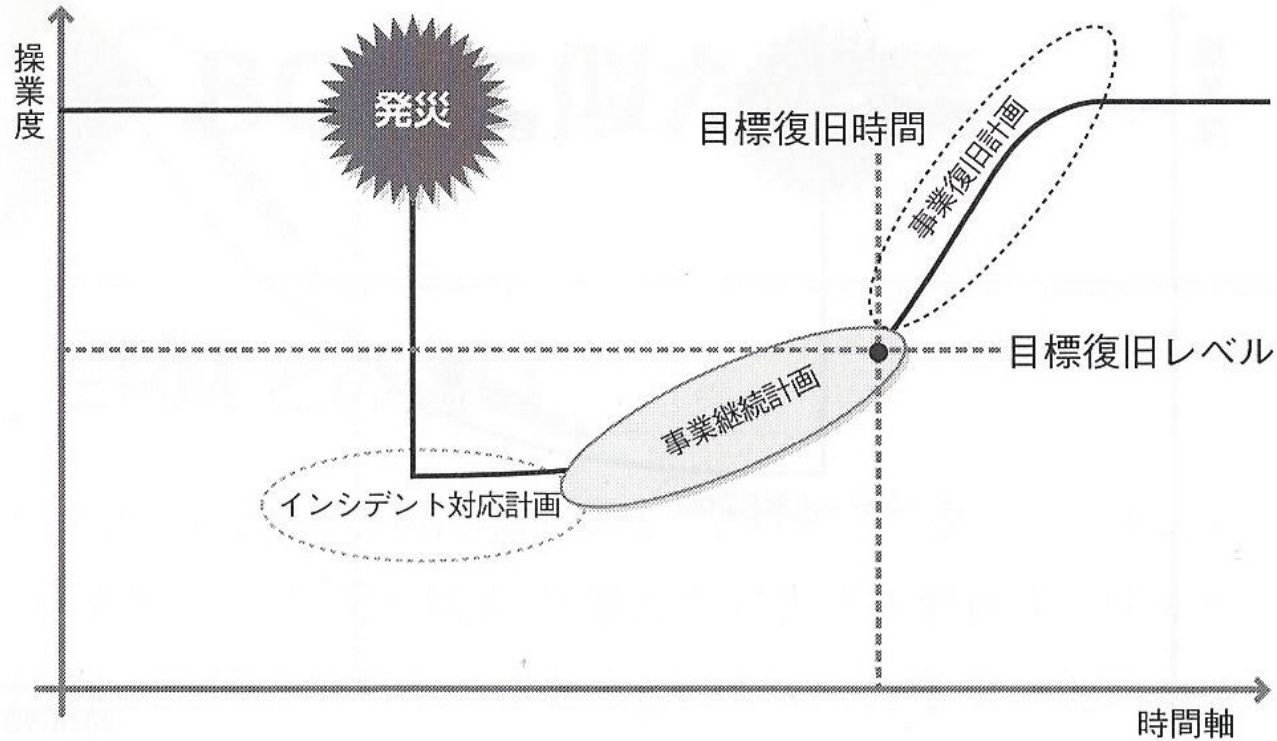
07. 관점변화1. 현재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위험은?

● RISK?

●continuity

●resilience

08. 재난발생과 복구의 새로운 관점



●図 事業継続計画の位置づけ

- 핵심업무

- 목표복구
시간(RTO)

10. 관점변화 4: 사회안전망 구축의 방안

● societal
security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 구축 (BCMS)

2.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

I)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란?

BCMS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또는 사업연속성관리
시스템으로 재난(또는 업무중단사고) 발생시
회사의 핵심업무를 복구 목표 시간에 수행하여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영시스템

Why?

중단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

- B Plan을 가지고 있나요 ?



2.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

Why?

환경요인

- 재난의 대형화
- 재난의 다양화
- 재난의 발생빈도 증가
- 재해로 인한 손실규모 극대화
- 9/11테러, 세월호
- 신종플루, 메르스
- 슈퍼태풍, 지진, 해킹

규제/시장 요인

- FSS 모범기준(안)
- Supply Chain에 대한 BCP요구
- 해외진출, 재보험
- 정부기관/대기업의 BCP요구
- 이해당사자의 요구(거래조건)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지원에 대한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기업재난관리 표준
- 정부의 위기관리 정책
- 국가 기반시설 보호계획
- 공공기관의 COOP도입(2017Y)

전략요인

- 경영전략/방침으로 접근
- 상장기업 중심으로 BCP구축
=> 중소기업으로 확대
- 리스크관리를 위한 핵심 구성 요소로 포함
- 1금융권의 BCP구축 완료(~2008)
- ISO 22301, 22313, BS 25999 도입 수요 확산
- 기업재난관리 표준도입/활성화

국내 외
대외 신뢰도 및
기업의 가치



임직원의 재난
안전관리 대응
역량 강화

2.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

Ⅱ)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 법적 근거

- 「재해 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2007년 제정 (이하 “기업재해경감법”)
→ 민간기업의 재난관리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 경감 및 재난 대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산업안전기본법 : 제4장 유해·위험의 예방 조치와 관련 (BCMS의 위험 평가와 목적이 유사함)
-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기업재해경감법 제 7조, 제19조~23조)
 - ① **가산점 부여** :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 시설공사, 용역참여시 가산점
 - ② 보험료 할인 : 재난관련 보험계약 체결 시 차등적용
 - ③ 세제지원 : 기업의 재해 경감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상의 지원
 - ④ 자금지원 우대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도 이용 가능
 - ⑤ 재해 경감 설비자금
 - ⑥ 산업단지 입주지원 등

2.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

1. PDCA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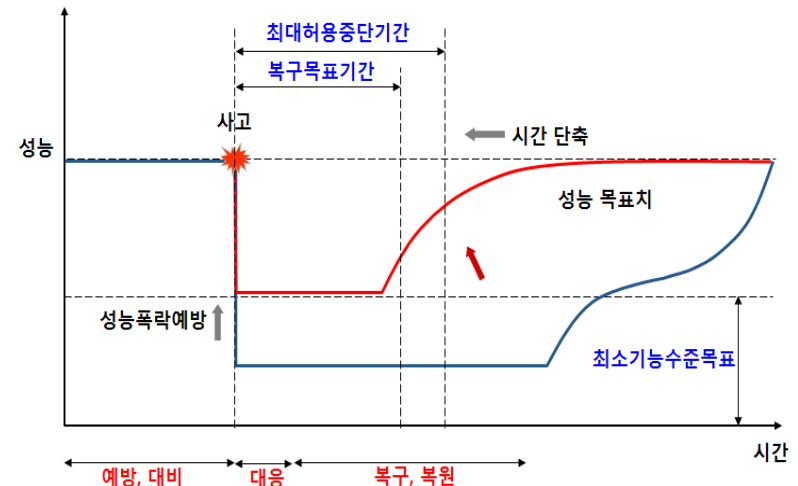
- 기능연속성계획의 운영은 **계획(Plan)**, **이행(Do)**, **검토(Check)**, **개선(Act)**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PDCA 모델을 적용
- 단순 계획 마련에 그치지 않고 이행, 검토, 개선 과정을 통해 계획의 실행력을 높임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 적용 모델]

2.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목표

- 재해경감활동이 추구하는 목표는 다음 그림과 같음
- **파란색 곡선**은 사업연속성계획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능의 성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 **빨간색 곡선**은 사업연속성계획이 도입된 상황을 나타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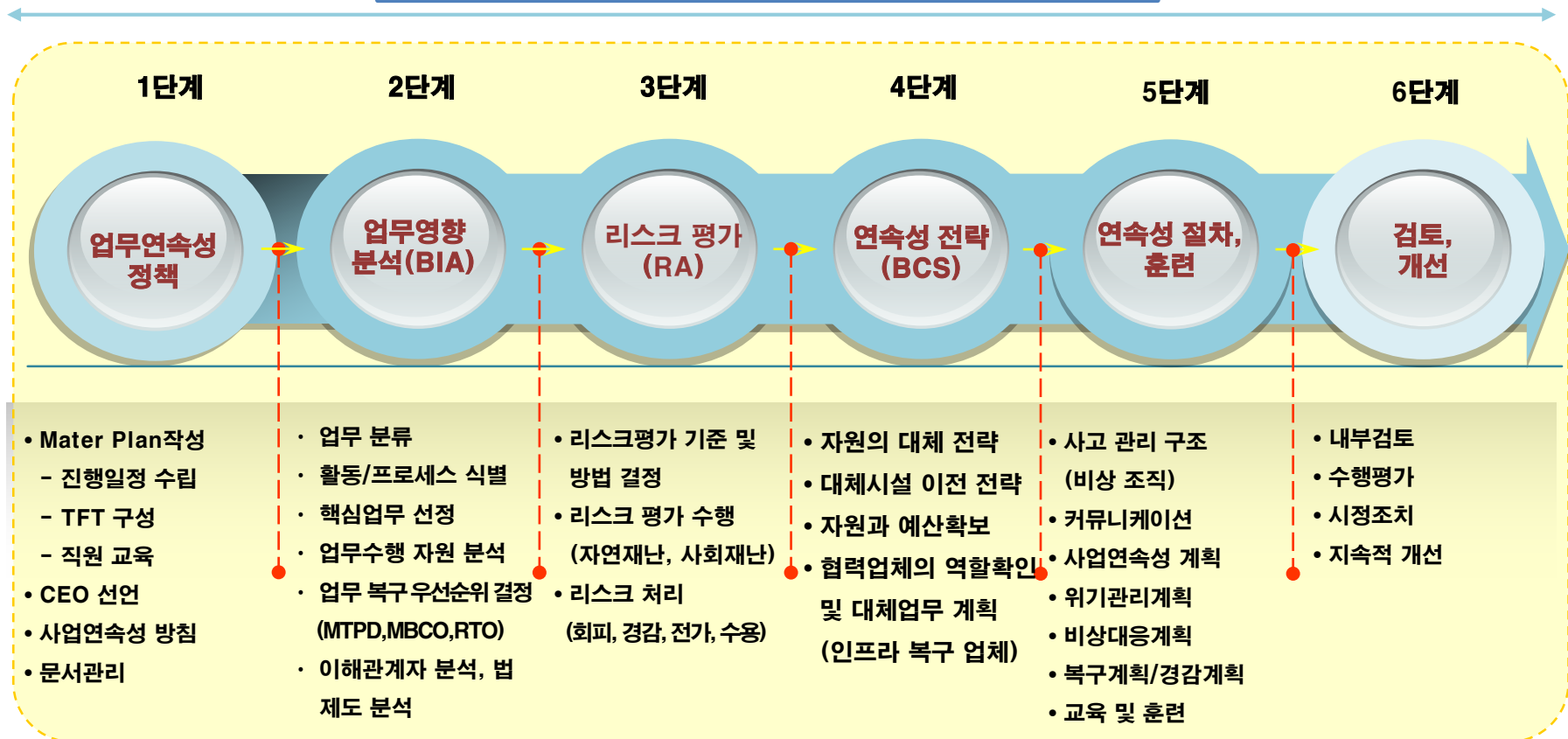


※ 참조 : 일반적인 재난관리는 복구가 완료되어야 업무를 개시하지만 BCMS를 구축하게 되면 대응과 거의 동시에 핵심업무를 수행/복구하게 됨.

2.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

Ⅲ) BCMS의 업무프로세스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의 업무추진 단계



* '업무'는 '사업 또는 기능' 으로 번역하여 함께 사용하고 있음
(예시: 업무연속성계획, 사업연속성계획, 영업연속성계획, 기능연속성계획 등)

2.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

IV) 기대효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대효과]

1. 재해경감 우수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기업의 자율활동 활성화를 통한 국가**재난 관리 역량 강화**
2. 기업의 재난 발생 전에 재해경감활동이 활성화 되어 **자연재해로 인한 기업종사자 및 생산 설비 등에 대한 인명, 재산, 기반시설 피해 등의 경제적 손실 경감**
3.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고객이미지 제고, 기업의 사업연속성확보를 통한 **기업가치향상**
4. 기업재난관리체계의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의 육성으로 **고용창출 기대**

[BCMS 도입효과]

1. **통합적인 위기대응체제 확보** - 과거 단편적으로 존재하던 위기관리, 비상계획, 주요문서/기록관리, 데이터센터 복구계획 등을 비즈니스 전략과 일관되게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유지
2. **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통한 주주, 고객, 시장, 투자자 등 대내외 이해관계로 부터 **대내·외 기업 신뢰도 향상**
3. 치명적 업무손실로부터 **기업의 영업활동을 신속하게 회복** - 기업안정성 강화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사 수주 시 가산점 수혜를 통한 매출 증대

2.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

국내 구축 사례

1. 기업재난관리 표준에 의한 구축

2019. 5월 현재

- ① (주) 영성 TIS - 휴맥스 협력업체
- ② 동서발전 협력 3개사 (진행중)
- ③ 남부발전 협력 3개사 (진행중)

2. ISO 22301에 의한 구축

- ① 현대/기아 1차 벤더사 약 200개 업체
- ② LG전자 (휴대폰 분야 및 베트남 사업부, 전기차 부품사업)
- ③ SK하이닉스 (이천, 청주)
- ④ 한국전력
- ⑤ 동서발전 및 남부발전
- ⑥ 에이스케미칼 (현대/기아 2차 벤더사)
- ⑦ 세종특별시
- ⑧ 한국수력원자력
- ⑨ 한온시스템
- ⑩ 한국타이어
- ⑪ 은행권
- ⑫ 기타

* 건설분야는 현재까지 인증기업 없음

3. 정부 · 지자체는 COOP 수립예정 (법적 필수 사항)

Q & A



감사합니다